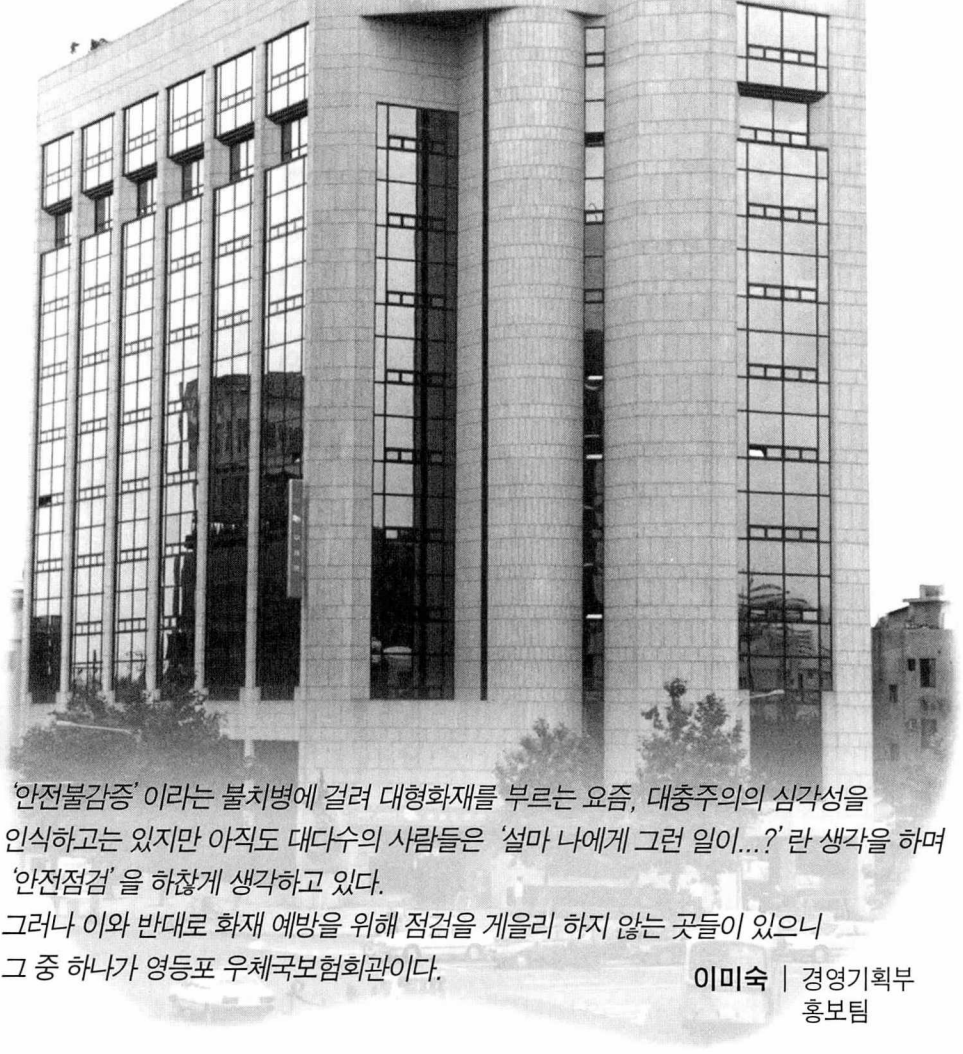


다양한 업무를 통해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영등포 우체국보험회관



‘안전불감증’이라는 불치병에 걸려 대형화재를 부르는 요즘, 대중주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란 생각을 하며 ‘안전점검’을 하찮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화재 예방을 위해 점검을 게을리 하지 않는 곳들이 있으니 그 중 하나가 영등포 우체국보험회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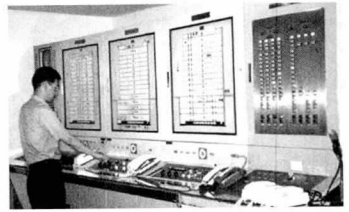
이미숙 | 경영기획부
홍보팀

□ 회관 현황

영등포역 앞에 위치한 우체국보험회관의 방화관리는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회관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은 1999년 4월 ‘체신저축장려회’로 설립되어 ‘체신장려회’, ‘체신금융진흥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지난 2000년 6월 지금의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이 되었다.

정보통신부 산하 단체인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은 연구개발 업무, 교육홍보 업무, 보험사고 조사 및 심사 업무, 회관관리 업무 등 크게 4가지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또한 우체국의 예금·보험 사업을 지원하고자 국내의 경제 흐름 파악에서부터 콜 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보험상품에 관한 연구분석, 각종 시스템 구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통해 우체국을 찾는 고객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 소방시설

지하 4층, 지상 11층, 연면적 14,070㎡의 영등포 우체국보험회관은 업무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요 방재시설을 살펴보면 전층에 소화기, 옥내소화전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고, 지하층과 11층에는 습식 및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를, 변·발전실 등 중요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설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등의 소화활동설비와 특별피난계단, 비상조명등설비, 피난구·통로유도등 등 인명피해방지에 큰 역할을 피난시설을 설치하여 화재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방화관리 조직 및 활동

영등포 우체국보험회관의 방화관리 전반을 맡고 있는 회관관리팀은 연간, 주간, 일일별로 작성하는 방재점검 계획표를 바탕으로 점검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또한 원활한 방재계획의 운영을 위해 자위 소방대를 조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직장 내 화재발생 취약지구의 중점적 관리, 방화환경 조성, 소방교육 훈련과 소방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 방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소방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화재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기 부문 4명, 기계 부문 4명 총 8명이 중심이 되어 방화관리 조직을 운영하고 소화 및 피난 등의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감독한다. 이들은 부분별 각 1명씩 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회관관리팀 2명과 경비 2명이 점검을 하는데, 특히 화재 발생 우려가 많고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지하 서점을 방화순찰지구 중에서도 특별히 집중점검대상으로

하고 있다.

영등포 우체국보험회관은 전직원의 소방상식과 방화의식 함양을 위해 매달 15일 소화요령, 대피훈련 등에 관한 소방훈련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업무회의 때에도 '화재안전'을 강조하여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 협회와의 관계

영등포 우체국보험회관은 국유건물로서 1989년부터 올해로 13년째 매년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자체점검도 지난 5월에 실시하여 화재안전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영등포 우체국보험회관은 대형건물은 아니지만 비슷한 규모의 여느 건물들과 달리 방화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리시스템의 신뢰도, 화기사용시설, 위험물시설, 전기시설 등의 상태, 화재감지 및 초기소화대책의 신뢰도 및 소화설비 등의 평가에 따른 화재위험도지수(Fire Risk Index)가 우수하여 화재안전등급은 1등급이며 특수건물할인율도 상향조정될 것으로 본다.

이번 탐방에서 인상깊었던 것은 방화관리자의 '자부심과 긍지'이다. 이들은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매일 반복되는 점검이라도 게을리 하거나 소홀하게 생각지 않으며 꼼꼼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기술직관리자들은 모두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도 국가기술자격증 추가 취득을 위한 자기개발 노력을 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이들과 같은 마인드를 가진다면 얼마 전에 일어났던 예지학원과 같은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등포 우체국보험회관에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